

취업신념 측정척도 개발과 타당화 연구

The Development and Validity of a Scale to Evaluate Maternal Beliefs Regarding Employment

순천청암대학 사회복지학과
전임강사 손 경 화
경희대학교 아동학전공
교 수 조 복 희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Suncheon Cheongam College

Full-time Instructor : Kyeng Hwa Shon

College of Human Ecology, Kyunghee University

Professor : Bok Hee Cho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및 해석 |
| II. 이론적 배경 | V. 요약 및 결론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evelop a scale to evaluate maternal beliefs regarding employment and to demonstrate its validity. The subjects in the study included 225 mothers in Suncheon who had children under the age of 5. Initially, the definitions of beliefs associated with employment presented in previous studies were examined, after which the existing scale, Beliefs about the Consequence Maternal Employment for Young Children (BACMEC), was modified based on the advice of three experts in child study. Next, 35 mothers who had preschool children were interviewed to assess their views on the positive and negative aspects of maternal employment. After excluding overlapping contents, a scale composed of 50 questions (24 questions adapted from questions on the BACMEC and 26 created based on the results of the interview) was generated. Based on the result of factor and regression analysis, 27 (15 questions regarding positive aspects of employment and 12 regarding negative aspects of employment) of the 50 questions were selected for use as the new scale. Reliability analysis showed satisfactory results (Cronbach's $\alpha = .89-.92$). In conclusion, it is hoped that the scale for maternal beliefs in employment developed in this study will be used as a useful measurement tool in future studies conducted to evaluate maternal employment.

주제어(Key Words) : 어머니의 취업신념(maternal beliefs in employment), 취업의 긍정성 (the positive aspects of employment), 취업의 부정성 (the negative aspects of employment)

Corresponding Author : Kyeng hwa Shon,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Suncheon Cheongam College, 224-9 Deokwol-dong, Suncheon city, Jeonnam, 540-740, Korea Tel:+82-61-740-7287 Fax:+82-61-740-7294 E-mail :vivid814@hanmail.net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여는 보편적인 사회현상이며, 자녀를 키우는 기혼여성 특히 취학전 자녀를 둔 어머니의 경제활동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따른 변화로 인해 취업모의 직장인으로서의 역할과 어머니로서의 역할간 고민과 갈등은 한정된 시간과 제한된 능력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한다. 그러나 이러한 취업에 따른 부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기혼여성의 취업은 사회적 지위부여에 따른 소속감과 직업만족에 의한 자아실현, 그리고 가사 또는 자녀양육에 대한 해방감과 스트레스의 전환 등으로 많은 기혼여성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직장생활을 병행하고 있다.

어머니의 취업과 관련하여 자녀양육과 같은 전형적이고 전통적인 어머니의 역할이 얼마나 아동의 삶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연구에서 밝히고 있다. 대부분의 연구들이 어머니 취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취업에 따른 죄책감과 가정과 직장생활의 병행으로 인한 갈등만을 강조하여 어머니 취업의 문제점만을 부각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져왔다. 물론 취업으로 인한 자녀양육의 어려움이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측면도 있으나, 실제로 취업모들은 직장생활을 통해 가정생활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직장에서 긍정적 방향으로 승화시켜 가정생활에 더 활력을 갖고, 이러한 긍정적 잇점으로 인해 자녀양육에 대한 질적 측면이 강화되어 긍정적 작용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자녀를 둔 어머니의 직장생활이 반드시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며, 또한 맞벌이를 통해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 가계의 경제적 보탬에 기여하는 긍정적 잇점도 있다. 최근의 연구에서는 모성취업과 관련하여 어머니의 취업이 가족구성원에게 각각 다르게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면서(Alessandri, 1992; Hoffman, 2000, Vandell & Ramanan, 1992), 취업모의 딸들은 아들보다 학업성취에 있어 더 높은 점수를 나타내며, 더 전통적인 틀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하고, 인지발달에 있어 더 높은 점수를 나타낸다고 주장하였다.

어머니의 취업과 아동의 행동간의 관계는 다른 여러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다양한 변인들을 탐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자녀를 둔 어머니의 취업에 대한 영향력을 설명함에 있어 어머니의 취업신념은 어머니의 취업과 아동보육 결정에 매우 중요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확인한 바 있다.(Greenberger, Goldberg, Crawford, & Granger, 1988; Huston, Chang, & Gennetian, 2002; Hyde & McKliney, 1993; NICHD, 1997; Pungello & Kurtz-Costes, 1999, 2000). 예를 들어, 어머니의 취업에 대한 영향력

에 있어 긍정적인 신념을 가진 어머니들은 취업에 대한 부정적인 신념을 가진 어머니보다 더 쉽게 취업을 결정하고, 더 빨리 비모성보육을 시작하기 쉬우며, 더 많은 시간 보육기관에 아이들을 보낸다고 보고하였다(Hyde & McKinley, 1993; Vandell, Hyde, Plant, & Essex, 1988). 따라서, 어머니의 취업에 대한 신념 또는 자녀를 둔 어머니의 취업에 대한 태도는 자녀양육에 있어 많은 영향력을 주며, 특히 보육선택과 같은 비모성보육의 선택여부와 시기를 결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 예측된다.

이와 같이 취업신념은 어머니에게 중요하나 이것을 측정할 수 있는 적절한 측정도구가 부재하며 대부분 어머니의 취업관련 연구들이(Greenberger, *et al.*, 1988) 어머니의 취업이 아동발달 측면에 있어 긍정적인 취업결과 가능성을 간과하였기 때문에 부정적 질문 위주의 제한적이고, 한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국외의 선행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Beckman *et al.*(1979)에 의해 여성의 취업에 대한 만족도와 비용을 측정하였다. 그러나 이 측정도구는 여성자신에 대한 일의 효과에 초점을 두어 어머니의 취업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와 관련된 문항들이 소수에 불과하여 취업에 따른 어머니의 인식과 태도를 살펴보기에 부족하였다. 뒤이어 Hock *et al.*(1984)는 Exclusive Maternal Care(EMC)도구를 개발하여 모성보호에 대한 어머니의 신념을 측정하였으나, 이 역시도 어머니의 취업에 대한 결과를 설명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에 Greenberger *et al.*(1988)는 기존의 취업관련 측정도구들의 제한점을 극복하고자 Beliefs about the Consequences of Maternal Employment for Children(BACMEC)을 개발하였다. BACMEC은 모성취업에 대한 결과를 측정함에 있어 전통적인 측정도구들이 개인의 경제 활동 참여에 국한하였기 때문에 여성 직업에 따른 편향된 결과만을 강조하였으므로 아동을 둘러싼 가족적 맥락에서 모성취업에 대한 전체적인 조망이 필요하리라 판단하여 개발되었다.

본 연구는 기존의 원측정도구(BACMEC)를 그대로 번안하여 사용할 경우 각 나라마다 독특한 문화적 배경과 가치관의 차이를 무시할 수 있으므로 사용에 무리가 뒤따를 수 있으며, 한국 어머니의 취업에 대한 신념과 맞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취업신념을 파악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어머니의 취업신념척도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신뢰롭고, 타당한 취업신념 척도개발을 연구목적으로 삼고자 한다.

2. 연구문제

이상의 연구목적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1> 어머니의 취업신념 척도의 문항들은 타당하게 선별되었으며, 취업신념의 하위변인은 신뢰로운가?

<연구문제2> 어머니의 취업신념은 연령, 교육수준, 취업여부 및 경제적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II. 이론적 배경

1. 어머니의 취업신념에 관한 선행연구 및 개념

여성들은 취업으로 인한 여러 불이익 예를 들어 가사, 출산, 보육·교육과 같은 문제들로 인해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에 많은 고민과 갈등을 경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혼여성들의 경제참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여성의 사회진출로 인해 어머니의 취업과 아동발달간의 관련선행연구(Bronfenbrenner & Crouter, 1982; Hoffman, 1984, 1985)들이 많이 수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자녀를 가진 어머니의 취업신념에 대한 연구는 그동안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게다가 흥미로운 사실은 취업과 관련된 많은 연구들이 어머니의 취업이 아동발달에 있어 긍정적인 결과를 가질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Greenberger et al., 1988). 이는 여성의 사회진출이 자녀를 둔 취업모와 아동간의 애착 그리고 어머니와 아동간의 상호작용에 주목하면서, 잠재적으로 정서적 분리에 따른 아동발달상의 문제에 지나치게 집중함으로써 어머니의 취업으로 인해 여러 가지 잇점들을 상대적으로 과소평가했기 때문이다.

Beckman(1978)은 취업한 여성이 지각하는 취업 만족과 그 비용을 파악하고자 측정척도를 개발하여 사용하였다. Beckman의 취업 측정도구는 취업에 따른 여성의 자아 존중감 개발과 같은 여성 자신에 대한 일의 효과에 초점을 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측정문항들이 자녀를 둔 어머니의 취업에 관한 부정적 측면에만 집중하였고, 모성취업이 가진 긍정적 잇점에 대한 문항이 소수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어머니 취업에 따른 긍정적 결과를 살펴보는 것에는 미흡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 취업에 대한 긍정적 결과를 인식한 질문을 포함했다는 측면에서 의의를 갖는 연구였다. 이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Beckman과 Houser(1979)는 어머니의 취업에 있어 높은 부정적 측면(비용)을 인식한 여성들은 그렇지 않은 여성들에 비해 취업을 하지 않는 경향이 많았으며, 특히 전문직종에 근무하는 취업여성의 경우 전업주부보다 취업으로 인한 보상(잇점)으로 취업을 선택하였다는 것을 밝혔다.

어머니의 취업에 대한 결과와 관련된 취업신념을 살펴보고자 새로운 측정도구의 필요성으로 Tetenbaum, Lighter

와 Travis(1983)는 취업모에 대한 태도(The Attitudes Toward Working Mothers Scale; AWM)를 개발하였다. AWM은 취업모에 대한 직업태도에 관한 문항으로 총 32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어머니의 취업으로 인한 잠재적인 효과와 관련한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AWM은 취업모들의 태도에 관한 영향력을 진술하고 있어 그 이후의 많은 모성취업관련 연구에 선구적인 측정도구로 평가받았다. 이후 Hock et al.(1984)은 Exclusive Maternal Care(EMC)를 개발하여 독점적인 모성보육에 대한 어머니의 태도를 측정하고자 5문항으로 구성된 5점 리커트 척도 문항을 구성하였다. EMC로 측정된 연구에서 영아를 둔 어머니는 생후 1년에 직장에 나가기로 계획한 어머니보다 독점적인 모성보호신념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Greenberger et al.(1988)는 기존의 취업신념관련 측정도구들의 제한점을 극복하고자 Beliefs about the Consequences of Maternal Employment for Children(BACMEC)을 개발하였다.

24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BACMEC는 자녀를 둔 취업모의 취업에 따른 결과에 대한 신념을 측정하였다. 어머니가 취업 상태에 있을수록, 더 많은 시간 일을 할수록, 일하는 부모를 지원하는 관련 정책들이 많을수록 긍정적인 모성취업에 대한 신념이 높았다. 이들은 기존의 측정도구가 어머니의 취업이 아동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력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머니의 취업이 아동에게 미치는 잠재적 효과와 같은 긍정적 측면을 설명하지 못하므로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척도개발을 위해 연구대상을 2개의 대학생집단과 대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 집단, 아동발달 전문가, 그리고 지역에 거주하는 성인여성 등 5개의 하위집단을 구분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를 참고하여 어머니의 취업에 따른 부모자녀간의 애착의 질에 대한 효과와 아동의 성역할개념과 관련된 문항, 그리고 대중매체를 통해 이슈화된 아동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문항들로 일차적인 문항을 작성하였다. 그런 다음 어머니의 취업이 자녀에게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결과를 목록화하고자 심리학 전공 대학생들에게 인터뷰하여 기본적인 문항의 틀을 정교화시켰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어머니의 취업에 대한 잠재적인 결과에 관한 총 24문항이 완성되어 “어머니의 취업신념 척도”를 개발하였다. 이 척도는 신체적 건강(2문항), 안전(2문항), 부정적인 심리사회의 영향력(6문항), 긍정적 심리사회의 영향력(6문항), 성역할(5문항), 끝으로 학업수행의 영향력(3문항)등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BACMEC를 구성하고 있는 하위 요인은 어머니의 취업신념에 관한 긍정적인 측면인 잇점(하위요인1) 13문항과 부정적인 측면인 비용(하위요인 2) 11문항으로 되어있다. BACMEC

는 기존의 취업관련 측정 도구에서 미흡한 어머니의 취업에 대한 긍정적 측면(강점)과 부정적 영향력 모두를 포함하고 있어 하위 문항들의 높은 신뢰성과 타당도, 좋은 점수 분포를 나타내었으며(Greenberger *et al.*, 1988), 기존 도구들의 진술형태가 부정적인 진술을 동의하는 것과 같은 단어로 구성된 반면 BACMEC는 긍정적인 진술로 구성되어 균형있는 문장구조이다.

아울러 BACMEC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의 α 계수를 살펴보았는데 전체 문항은 .89에서 .94로 매우 신뢰로운 수준이었으며, 하위요인인 잇점은 .83에서 .91이었으며, 하위요인인 비용은 .88에서 .94로 매우 만족할만한 신뢰수준을 나타내었다. 아울러 최근 미국 어머니를 대상으로 모성취업에 대한 어머니의 태도와 영아보육이 어머니의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장영은(2006)은 BACMEC 척도를 사용하여 .80의 신뢰도를 보고한 바 있다. 그러나 국내 연구에서는 BACMEC 척도가 사용되지 않았으며, 본격적인 척도개발 연구로 이어지지 않았기에 본 연구에서는 자녀를 가진 어머니의 취업신념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고자 한국 실정에 적합한 어머니의 취업신념 척도를 자체 개발하고자 하였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절차

본 연구는 순천시에 거주하는 영유아기 자녀(만5세 미만)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였다. 영유아 연령분포의 다양성을 위하여 순천시 영아전담어린이집 3곳, 일반 어린이집 2곳, 유치원 1곳을 선정하여 직접 연구의 목적과 의의를 시설장에게 설명한 후, 각 가정에 질문지와 연구목적에 대한 가정통신문을 발송하여 회수하였다. 또한 교육기관을 보내지 않은 어머니의 특성을 알고자 개별접촉을 통해 직접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수집은 2008년 4월과 5월에 걸쳐 이루어졌

으며, 총 330부의 질문지를 배포하여 257부가 회수되었으나, 이중 부실기재 된 질문지를 제외하고 총 225부를 최종분석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대상 어머니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1>과 같다.

2. 측정도구의 구성

1) 어머니의 취업신념

어머니의 취업신념 척도를 구성하는 문항을 제작하고자 개발초기단계에서는 Greenberger *et al.*(1988)에 의해 제시된 Beliefs About The Consequence Maternal Employment for Young Children(BACMEC)에 준거하여 진행되었다. BACMEC는 총 24문항으로 긍정적인 측면(잇점) 13문항과 부정적인 측면(비용) 11문항으로 각 하위 문항은 신체적 건강(2문항), 안전(2문항), 부정적인 심리사회의 영향력(6문항), 긍정적 심리사회의 영향력(6문항), 성역할(5문항), 끝으로 학업수행의 영향력(3문항)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자가 번안한 후 아동학 전문가 3인 자문을 받아 수정·보완하였으며, 자문결과에서 각 하위문항에서 누락된 모성취업의 긍정성과 부정성에 대한 내용추가에 관한 요구사항이 있었다.

이에 척도 개발을 위한 다음단계에서 미취학자녀 1명 이상을 둔 부모 35명을 대상으로 어머니의 취업에 따른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즉 전업주부와 취업모의 취업유무에 따른 취업태도에 대한 세부내용들을 파악하고자 직접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취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모성취업의 긍정적 측면과 자녀양육의 어려움 및 아동발달의 부정적 측면에 대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이는 한국 어머니의 취업신념에 대한 실정을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개별 면접을 통해 진행되었다. 인터뷰결과 기존 척도에서 다루어진 중복된 내용을 배제하고, 기존 척도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취업신념에 대한 내용 26문항들이 추가되었다. 이후 개발초기단계에서는 번안한 24문항과 인터뷰결과에 의한 26문항을 합쳐 총 50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취업신념의 정도를 나타내기 위해 6점식 Likert 척도로 '정말 그렇지 않다' 1점에서부터 '정말 그렇다'의 6점까지 취업신념을 평정하였다.

요인분석에서 원측정도구 BACMEC의 하위요인과 비교한 결과 2개의 하위요인(취업의 긍정성; 잇점, 취업의 부정성; 비용)으로 묶여져 일치된 결과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취업신념 측정척도의 세부 문항들을 살펴본 결과 요인 1은 어머니의 직업으로 인한 취업의 긍정성, 즉 어머니의 직업선택으로 인한 모성취업의 긍정적인 측면이 포함되었다. 요인 2는 어머니의 직업으로 발생하는 취업의 부정성, 즉 취업으로 인해 손실되는 자녀양육의 어려움 및 아동발달의 부정적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경향 (N = 225)

배경변인	구분	빈도
연령	30세 이하	27(13.6%)
	31-35세 이하	114(58.3%)
	36세 이상	58(25.8%)
교육수준	고졸	40(17.8%)
	전문대졸	67(29.8%)
	대학교 이상	103(45.8%)
취업여부	풀타임	116(51.6%)
	파트타임	13(5.8%)
	전업주부	91(40.4%)
가정수입	300만원 이하	62(27.6%)
	301~400만원 이하	58(25.8%)
	401만원 이상	61(27.1%)

측면이 포함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자들은 요인 1의 15문항을 취업의 긍정성으로, 요인 2의 12문항을 취업의 부정성으로 명명하여 최종 선정하였다. 총점은 요인 1(취업의 긍정성, 예; 자녀에게 취업모는 역동적이고, 생산적인 삶에 대한 훌륭한 역할모델이 될 것이다)의 모든 문항의 총합과 요인 2(취업의 부정성, 예; 취업모의 아이는 어머니와 온정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의 모든 문항을 역으로 채점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취업신념을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2) 어머니의 직업에 대한 태도

취업신념과 비슷한 측정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어머니의 직업에 대한 태도 (Attitude Toward Maternal Employment) 측정도구가 사용되었다. 이 도구는 이희경(1981)이 사용한 Farel(1980)의 어머니의 직업에 대한 태도를 박성옥(1993)이 축소한 척도로 4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위요인은 어머니의 직업이 자녀에게 미치는 긍정적 영향, 어머니의 직업이 자녀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 어머니의 직업이 어머니 자신에게 미치는 긍정적 영향, 어머니의 직업이 어머니 자신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각 하위변인의 신뢰도는 각각 Cronbach' α .66, .45, .67, .64이다. 각 요인은 각 3문항씩 12문항으로 5점 Likert 척도로 '대체로 그렇지 않다' 1점에서부터 '정말 그렇다' 5점까지 평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직업에 대한 태도가 더 높게 인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3) 성역할태도

기존 측정도구와 취업신념과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자 김혜원(1997)이 사용한 성역할태도(Gender-Role Attitudes Scale: GRAS)로 측정하였다. 성역할태도는 원측정도구인 BACMEC를 Greenberger *et al.*(1988)가 개발할 당시 취업신념의 하위요인이 성역할과의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척도개발과정에서 사용한 도구이기 때문에 취업신념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있어 의미있는 도구라 판단하여 사용하게 되었다. 성역할태도척도(Gender-Role Attitudes Scale: GRAS)는 정중희(1983)가 Sex-Role Orientation(SRO)과 Sex-Role Ideology Scale(SRI)을 표준화하여 김혜원(1997)이 수정·보완한 성역할태도 척도를 사용하였다. GRAS의 하위요인은 가정역할, 직업역할, 성격 및 행동에 관한 고정관념으로 내적합치도 지수인 Cronbach' α 값은 하위요인별로 .66, .71, .54로 산출되었다.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를 의미하며, 점수가 낮을수록 진보적인 성역할태도를 갖고 있음을 나타낸다.

3. 자료분석

본 연구는 SPSS 12.0을 이용하여 분석되었다. 첫째 어머니의 취업신념 척도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주성분분석(PCA : Principal Components Analysis) 및 Varimax 회전방식을 이용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Cronbach' s α 산출하였다. 둘째, 측정도구의 공인타당도를 위하여 어머니의 취업신념 척도의 하위요인과 어머니의 직업에 대한 태도 및 성역할태도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어머니의 연령, 교육수준, 취업유형, 경제적 수준에 따른 취업신념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ANOVA를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어머니의 취업신념 평가척도의 타당성 및 신뢰도

1) 구인타당도

어머니의 취업신념 평가 척도의 항목들이 타당하게 선별되었고, 구성되었는가를 검증하기 위해 추출된 85문항에 대한 적합성, 측정가능성을 평정하기 위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추출 모형으로 주성분분석(PCA : Principal Components Analysis)을 사용하였다. 회전방식은 요인간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사각회전의 Oblimin 방식을 사용하여 각 요인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요인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KMO 측도를 사용하여 변수들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것으로, 이 KMO 측도 분석결과는 <표 2>와 같이 .82로 나타났다.

<표 2> KMO(Kaiser-Meyer-Olkin)와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KMO측도		.82
	Approx. Chi-Square	4368.31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df	324
	Sig	.000

요인분석의 적합성을 나타내는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치는 상관관계행렬이 단위행렬이란 귀무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것으로써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취업신념 평가척도의 50 문항에 대한 검정치가 4368.31이고 유의수준이 .000이므로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다. 따라서 어머니의 취업신념 평가척도의 타당도를 측정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사용할 수 있음을 밝혔다.

먼저, 내재화된 요인수를 파악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 -Principa Components)

〈표 3〉 어머니의 취업신념 평가척도 요인분석

(N = 225)

		측정항목	1요인	2요인	
1요인 취업의 긍정성	30.	취업모의 딸은 성취 지향적인 행동을 더 많이 나타낼 것이다.	.74		
	29.	취업모는 딸의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69		
	26.	취업모의 아들은 더 여성을 존중하기 쉬울 것이다.	.68		
	14.	취업모의 아이들은 여성의 지적 능력과 유능성에 대해 더 잘 이해할 것이다.	.65		
	33.	취업모의 딸은 자라서 가정밖의 경제활동이나 사회활동을 하길 원할 것이다.	.65		
	34.	취업모의 아이들은 전업주부아이보다 더 넓은 인간관계를 형성할 것이다.	.63		
	31.	취업모의 아이들은 가사분담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성고정관념을 덜 가질 것이다.	.60		
	9.	엄마가 집 밖에서 전일제 직업을 갖고 일한다면, 취업모의 딸들은 학교에서 더 강하고, 진취적인 동기를 발전시킬 것이다.	.59		
	5.	자녀에게 취업모는 역동적이고, 생산적인 삶에 대한 훌륭한 역할모델이 될 것이다.	.59		
	32.	취업모의 딸은 전업주부아이보다 자신의 행복이 미래의 남편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58		
	21.	취업모의 아이는 가족들간에 팀워크와 협력의 중요성을 더 많이 배울 것이다.	.57		
	16.	취업모의 아이는 돈의 가치를 더 잘 이해하고, 평가하기 쉬울 것이다.	.57		
	10.	취업모의 딸들은 직업과 어머니 역할 두 가지를 병행할 준비가 잘 되어 있을 것이다.	.56		
	26.	취업모의 아이들은 전업주부아이보다 장래에 대한 더 높은 내적동기를 가질 것이다.	.56		
	39.	취업모의 아이는 자라서 맞벌이를 할 가능성이 전업주부아이보다 더 높을 것이다.	.56		
	23.	취업모의 아이는 남성과 여성의 역할에 대하여 성고정관념을 덜 가질 것이다.	.55		
	48.	취업모의 딸들은 어머니가 직장을 가지고 당당히 사회생활을 하는 것을 자랑스러워할 것이다.	.53		
	35.	취업모의 아이들은 스스로 시간관리를 잘 할 것이다.	.53		
	19.	취업모의 아들은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를 원하는 미래의 아내와 더 잘 협력할 것이다.	.53		
41.	어머니의 취업은 딸에게는 여성상에 대한 모델을 제공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52			
27.	취업모의 아이들은 교육기관에 더 일찍 가기 때문에 전업주부의 아이들보다 타인과의 사회적인 관계를 잘 형성할 것이다.	.52			
38.	취업모의 아이들은 타인과의 관계를 더 빨리 형성할 것이다.	.47			
36.	취업모의 아이들은 전업주부아이보다 더 빨리 부모로부터 독립할 것이다.	.43			
2요인 취업의 부정성	37.	취업모의 아이는 부모와의 애착관계형성에 문제가 있어 비행청소년이 되기 쉬울 것이다.	.71		
	43.	취업모의 아이들은 전업주부의 아이들보다 애착이 결여되어 심리적으로 더 불안해 질 것이다.	.68		
	22.	취업모의 아이는 다른 아이들보다 약물, 술, 이성관계에 더 빠지기 쉬울 것이다.	.62		
	45.	취업모의 아이들은 혼자있는 시간이 전업주부의 아이들보다 많기 때문에 반사회적인 행동을 더 많이 나타낼 것이다.	.60		
	15.	취업모의 아이는 전업주부의 아이들보다 영양상태가 양호하지 않고, 식습관도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59		
	17.	취업모의 아이는 어머니가 필요할 때, 옆에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 많은 고통을 받을 것이다.	.58		
	1.	취업모의 아이는 어머니와 온정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58		
	50.	취업모의 아이들은 가정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고, 정서적으로 불안하기 때문에 질병에 더 노출되기 쉬울 것이다.	.57		
	46.	취업모의 아이들은 전업주부의 아이들보다 패스트푸드를 더 많이 먹을 것이다.	.57		
	3.	전업주부보다 취업모의 아이가 심리적인 문제를 나타내기 쉬울 것이다.	.56		
	18.	취업모의 아이는 적절한 부모역할모델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라서 유능한 부모로 자라기 어려울 것이다.	.52		
	20.	취업모의 아이는 어머니가 그들에게 덜 관심을 갖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아존중감이 낮을 것이다.	.52		
	4.	전업주부의 아이는 청소년기에 문제행동을 덜 나타낼 것이다.	.51		
	42.	어머니의 취업은 아들에게는 어머니의 부재로 인한 외로움으로 딸보다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49		
	25.	취업모는 자녀양육에 대한 죄책감으로 전업주부보다 더 자녀에게 자유를 허용할 것이다.	.48		
	28.	취업모의 아이들은 혼자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전업주부의 아이들보다 TV나 컴퓨터를 더 많이 이용할 것이다.	.45		
	고유치(회전 제곱합 적재지)			8.690	6.190
	설명변량 %			17.72	11.92
	누적변량 %			17.72	29.64
Cronbach's α			.92	.89	

을 실시하여 분석에서 도출된 고유치와 스크리 플롯을 근거로 2요인이 내재되어 있음이 파악되었다. 그리하여 요인수를 2개로 지정하여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Principal Components with Oblimin)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2개 요인이 추출되어 전체 변량의 29.64%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 1요인은 전체 변량에 대해 설명변량이 17.72%로 어머니의 취업신념을 가장 잘 설명해주

고 있다. 요인1은 전체 23문항으로 이루어져있으며, 주로 어머니의 취업이 자녀들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들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요인1은 '취업의 긍정성'으로 명명하였다. 제 2요인은 전체 변량에 대한 설명력이 11.92%, 총 16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로 어머니의 취업이 자녀들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들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요인2는 '취업의 부정성'으로 명명하였다.

요인분석 결과를 토대로 도출된 취업신념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한 결과, 평가 도구 전체 문항에 대한 내적합치도는 .87이었으며, 취업의 긍정성은 .92, 취업의 부정성은 .89였다.

2) 회귀분석

다음에는 보다 적은 수의 타당한 문항으로 척도를 정석하고자 요인분석에서 얻은 척도에 단계별 회귀분석을 적용한 결과를 다음에 제시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각 요인에 포함된 모든 문항으로 하나의 척도를 구성하여 종속변수로 하고, 각각의 문항을 독립변수로 하여 단계별 회귀분석을 실시한 후 각 문항을 추가함으로써 증가하는 설명력(R^2)을 통해 문항들을 선정하는 방법이다(홍두승, 2005, pp. 81-101). 본 연구에서는 문항을 선정하는데 있어 독립변수의 설명력의 증가분이 거의 변화가 없는 문항에서부터 제외시키는 것은 정보의 손실을 가져오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요인 1에서는 단계적 회귀분석의 결과 R^2 의 증가 미만으로 취업의 긍정성에 기여도가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나머지 15문항은 전체 분산의 98%를 설명하고 있다. 요인2에서도 마찬가지로 단계적 회귀분석의 결과 R^2 의 증가 미만으로 취업의 부정성에 기여도가 낮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나머지 12문항은 전체 분산의 98%를 설명하고 있다.

이상으로 타당도 검증을 위해 실시된 요인분석과 회귀분석의 결과를 통해 50개 문항에서 23문항이 제외되고 27문항의 어머니의 취업에 대한 신념 척도가 구성되었다.

3) 공인타당도

본 연구에서 개발한 어머니의 취업신념 평가척도는 Farel(1980)이 만든 어머니의 직업에 대한 태도 중 박성옥(1993)이 사용한 12문항과 김혜원(1997)의 성역할태도 15문항을 사용하여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는데 이는 어머니의 취업신념 평가척도가 어머니의 신념을 측정하기에 타당한지를 알아보기 위해서이다.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에 의하면, 취업의 긍정성은 성역할태도 중 여성 및 남성의 가정역할($r = -.25, p < .001$), 일반적인 성고정관념($r = -.17, p < .05$)과는 부적으로 유의한 상관이 나타났다. 취업의 긍정성과 직업에 대한 태도의 관계에서는 직업이 자녀에게 미치는 긍정적 영향($r = .44, p < .001$)과 직업이 어머니 자신에게 미치는 긍정적 영향($r = .39, p < .001$)과는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 직업이 자녀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r = -.28, p < .01$), 직업이 어머니 자신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r = -.20, p < .01$)은 부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취업의 부정성은 성역할태도의 모든 하위변인과 정적인 상관관계($r = .45 \sim .51, p < .001$), 직업에 대한 태도에서는 직업이 자녀에

<표 4> 요인별 단계적 회귀분석

요인	문항	회귀식에 문항이 추가된 후의 R^2
요인 1	30	.564
	29	.725
	6	.811
	14	.858
	33	.885
	34	.906
	31	.924
	9	.938
	5	.950
	32	.957
	21	.962
	16	.968
	10	.974
	26	.978
	39	.982
23	.985*	
48	.987*	
35	.989*	
19	.991*	
41	.993*	
27	.995*	
38	.998*	
36	1.000*	
37	.510	
43	.670	
22	.774	
45	.828	
15	.867	
17	.902	
1	.922	
요인 2	50	.941
	46	.956
	3	.967
	18	.973
	20	.979
	4	.985*
	42	.990*
	25	.995*
28	1.000*	

* 설명력의 증가분이 1% 미만인 경우로 제외된 문항

게 미치는 긍정적 영향($r = -.47, p < .001$)과 직업이 어머니 자신에게 미치는 긍정적 영향($r = -.25, p < .01$)과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직업이 자녀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r = .53, p < .001$)과 직업이 어머니 자신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r = .40, p < .01$)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표 5〉 어머니 취업신념의 하위요인별 점수와 성역할태도 및 직업에 대한 태도의 상관관계 (N = 210)

		취업의 긍정성		취업의 부정성	
성역할 태도	여성 및 남성의 가정역할	-.25***	.51***		
	여성의 직업역할	-.10	.46***		
	일반적인 성고정관념	-.17*	.45***		
직업에 대한 태도	직업이 자녀에게 미치는 긍정적 영향	.44***	-.47***		
	직업이 자녀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	-.28**	.53***		
	직업이 어머니 자신에게 미치는 긍정적 영향	.39***	-.25**		
	직업이 어머니 자신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	-.20**	.40**		

p < .01, *p < .001.

2. 어머니의 연령, 교육, 취업여부 및 가정수입에 따른 취업신념

1) 연령

어머니의 연령에 따라 어머니의 취업신념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표 6〉에 의하면, 취업의 긍정성, 취업의 부정성에서 어머니 연령의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6〉 어머니의 연령에 따른 취업신념

취업신념	범주	M(SD)	F
취업의 긍정성	30세 이하(n = 26)	3.84(.74)	2.51
	31-35세이하(n = 109)	3.79(.65)	
	36세 이상(n = 55)	3.57(.58)	
취업의 부정성	30세 이하(n = 27)	3.36(.70)	.35
	31-35세이하(n = 111)	3.33(.74)	
	36세 이상(n = 53)	3.42(.63)	

2) 교육수준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라 어머니의 취업신념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표 7〉에 의하면, 취업의 부정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 = 3.04, p < .05). 평

〈표 7〉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른 취업신념

취업신념	범주	M(SD)	F
취업의 긍정성	고졸이하(n = 39)	3.74(.55)	.37
	전문대졸(n = 65)	3.70(.70)	
	대학교 이상(n = 96)	3.79(.59)	
취업의 부정성	고졸이하(n = 37)	3.60(.70)b	3.04*
	전문대졸(n = 65)	3.26(.72)a	
	대학교 이상(n = 97)	3.33(.67)a	

a,b : Duncan 사후검증 결과 유의하게 다른 집단의 표시 *p < .05.

균을 살펴보면, 고졸이하집단에서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대학교 이상, 전문대졸 순으로 나타났다. 취업의 긍정성에서는 교육수준의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3) 취업여부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 어머니의 취업신념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표 8〉에 의하면, 취업의 긍정성(F = 14.30, p < .001), 취업의 부정성(F = 8.60, p < .001)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취업의 긍정성을 살펴보면, 취업모 중에서도 직장에서의 시간이 길수록 평균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풀타임은 M = 3.94(.59), 파트타임은 M = 3.68(.42), 그리고 전업주부는 M = 3.49(.63)로 나타나 특히 풀타임 취업모와 전업주부에서는 큰 차이가 나타났다. 취업의 부정성을 살펴보면, 파트타임 취업모가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고, 전업주부, 풀타임 취업모 순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특히 풀타임집단과 파트타임, 전업주부 집단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취업신념

취업신념	범주	M(SD)	F
취업의 긍정성	풀타임(n = 112)b	3.94(.59)	14.30***
	파트타임(N = 11)ab	3.68(.42)	
	전업주부(N = 87)a	3.49(.63)	
취업의 부정성	풀타임(N = 110)a	3.19(.70)	8.60***
	파트타임(N = 10)b	3.66(.58)	
	전업주부(N = 89)b	3.57(.67)	

a, b : Duncan 사후검증 결과 유의하게 다른 집단의 표시 ***p < .001.

4) 가정수입

가정의 총수입에 따라 어머니의 취업신념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표 9〉에 의하면, 취업의 긍정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 = 3.85, p < .05). 평균을 살펴보면, 가정수입이 301만원-400만원 이하인 집단에서

〈표 9〉 가정수입에 따른 취업신념

취업신념	범주	M(SD)	F
취업의 긍정성	300만원 이하(n = 59)	3.67(.69)a	3.85*
	301~400만원 이하(n = 56)	3.97(.60)b	
	401만원이상(n = 59)	3.74(.58)ab	
취업의 부정성	300만원 이하(n = 61)	3.42(.75)	.38
	301~400만원 이하(n = 55)	3.32(.78)	
	401만원 이상(n = 58)	3.34(.60)	

a,b,c : Duncan 사후검증 결과 유의하게 다른 집단의 표시 *p < .05.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401만원 이상 집단, 300만원 이하 집단 순으로 나타났다. 대학교 이상, 전문대졸 순으로 나타났다. 취업의 부정성에서는 가정수입의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V. 요약 및 결론

자녀를 둔 어머니의 경제활동에 따라 어머니의 취업과 자녀양육과의 관련연구는 두드러지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어머니의 취업과 관련된 연구척도의 필요성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어머니의 취업신념에 따른 태도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도구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Greenberger *et al.*(1988)의 Beliefs about the Consequences of Maternal Employment for Children (BACMEC) 측정도구를 중심으로 어머니의 취업에 따른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에 대한 문항을 수집하여 측정도구를 구성하였다. 이 과정에서 취업주부 및 전업주부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취업신념 문항들을 수정, 보완하였다. 또한, 제작된 어머니의 취업신념 평가척도의 타당성 및 신뢰도를 살펴보고자, 요인분석, 공인타당도 및 상관관계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어머니의 취업신념 하위요인이 타당하게 선별되었는지를 검증하고자 추출된 85문항에 대한 적합성과 측정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주성분분석(PCA)을 사용하였으며, 또한 변수들간의 상관관계도 살펴보았다. 요인분석결과 선별된 50문항을 선별하였으며, 이들간의 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어머니의 취업신념 문항은 총 27문항 2개의 하위영역으로 어머니의 직업선택으로 인한 모성취업의 긍정적 측면인 취업의 긍정성(I 요인)과 어머니의 취업으로 인해 손실되는 자녀양육의 어려움 및 아동발달의 부정적 측면인 취업의 부정성(II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한편, 본 연구에서 개발된 척도의 공인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본 척도와 Farel(1980)이 만든 어머니의 직업에 대한 태도, 그리고 성역할태도(K-GRAS)와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 측정도구의 타당성을 입증하였다. 아울러 신뢰도 검증을 위해 각 하위요인별로 Cronbach의 α 계수가 .89 ~ .92의 범주로 나타나 만족할 만한 수준이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본 연구에서 개발된 취업신념 척도는 어머니의 취업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는데 신뢰롭고, 타당한 측정도구가 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끝으로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덧붙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척도는 미취학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는데, 자녀의 연령과 발달수준에 따라 어머니가 느끼는 취업에 대한 태도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녀의 연령과 발달수준에 따른 취업신념 척도를 개발하는 것도 기혼여성의 취업에 대한 태도를 반영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둘째, 본 연구척도는 단순히 취업과 비취업으로 어머니의 취업을 획일화시켜 개발하였지만, 향후 연구에서 취업과 관련하여 취업의 수준, 취업시간, 취업종류와 같은 취업관련변인과의 관련성에 관한 심도있는 추후 과제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척도는 순천지역의 일부 어머니를 대상으로 유의표집을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표본의 수가 적었다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수 있는 후속연구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어머니의 취업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의 연구를 통해 어머니의 취업신념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토되고, 수정·보완되어 우리나라 자녀를 둔 어머니의 취업에 대한 태도 측정에 있는 유용한 도구가 개발되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강희경(1998). 3세 이하 자녀를 둔 전문·사무직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 경희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김혜원(1997). 취업주부와 전업주부의 심리적 안녕감: 사회구조적 변인, 성역할태도, 역할의 질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1(2), 111-127.

박성연, 임미리(2002). 취업모의 직업관련 특성, 탁아기관의 질 및 심리적 안녕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2), 57-68.

박성옥(1993). 3세이하 자녀를 둔 어머니의 격리불안. 경희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이희경(1981). 모의 취업이 자녀의 적응과 어머니의 자녀양육 역할수행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장영은(2006). 취업에 대한 어머니의 태도와 영아의 보육이 어머니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7(3), 101-116.

정종희(1983). 어머니의 성역할태도가 딸에게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조금숙, 조증열(2004). 취업주부와 전업주부의 심리적 안녕감: 성역할태도, 스트레스 및 결혼만족도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9(3), 27-41.

홍두승(2005). **사회조사분석**. 서울: 다산출판사.

- Alessandri, S. M.(1992). Effects of maternal work status on single-parent families on children's perception of self and family and school achievement. *Journal of Experimental Child Psychology*, 54, 417-433.
- Barnett, R. C., & Marshall, N. L.(1991). *The relationship between women's work and family roles and their subjective well-being and Psychological distress*. In M. Frankenhaeuser, U. Lundberg & M. Chesney(Eds.) *Women, work, and health : Stress and opportunities* (pp.111-136). New York: Plenum Press.
- Beckman, L. J.(1978). The relative rewards and costs of parenthood and employment for employed women.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 215-234.
- Beckman, L. J., & Houser, B. B.(1979). Perceived satisfactions and costs of motherhood and employment among married women. *Journal of population*, 2, 306-327.
- Bronfenbrenner, U., & Crouter, A.(1982). Work and family through time and space. In S. Kamerman and C. Hayes(Eds.), *Families the work : Children in a changing world* (pp. 39-83). Washington, DC: National Academy Press.
- Farel, A. M.(1980). Effects of preferred maternal roles, maternal employment and sociodemographics status in school adjustment and competence. *Child Development*, 51, 1179-1186.
- Greenberger, E., Goldberg, W. A., Crawford, T. J., & Granger, J.(1988). Beliefs about the consequences of maternal employment for children.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12, 35-59.
- Greenberger, E., & O'Neil, R.(1990). Parents' concerns about their child's development: Implication for fathers' and mothers' well-being and attitude toward work.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 621-635.
- Hock, E., Gnezda, M. T., & McBride, S. L.(1984). Mothers of infants: Attitudes toward employment and motherhood following birth of the first child. *Journal Marriage and the Family*, 46, 425-431.
- Hoffman, L. W.(1984). Work, family, and the socialization of the child. In R. D. Parker(Ed.), *Review of child development research: Vol. 7. The family*(pp.223-282).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Hoffman, L. W.(1985). Maternal employment and the young child. In M. Perlmutter (Ed.), *Parent-child interaction and parent-child relations in child development: The Minnesota symposium on child psychology*,(Vol. 17, pp. 101-127).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 Hoffman, L. W.(2000). Maternal employment: Effects of social context. In M. C. Wang(Ed.), *Resilience across contexts: Family, work, culture, and community*(pp. 147-175).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Huston, A. C., Chang, Y. E., & Gennetian, L. A.(2002). Family and Individual predictors of child care use by low-income families in different policy contexts. Next Generation working paper(No.9). New York: Manpower Demonstration Research Corporation.
- Hyde, J. S., & McKinley, N. M.(1993). Beliefs about the consequences of maternal employment for children.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17, 177-191.
- NICHD Early child care Research Network.(1996). Characteristics of infant child care:Factors contributing to positive caregiving.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11, 269-306.
- NICHD Early child care Research Network.(1997). Familial factors associated with the characteristics of nonmaternal care for infant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9, 389-408.
- NICHD Early child care Research Network.(2001). Child care and family predictors of preschool attachment and stability from infancy. *Developmental Psychology*, 37, 847-862.
- Pungello, E. P., & Kurtz-Costes, B.(1999). Why and how working women choose child care: A review with a focus on infancy. *Developmental Review*, 19(1), 31-96.
- Pungello, E. P., & Kurtz-Costes, B.(2000). Working women's selection of care for their infants: A prospective study. *Family Relations: Journal of*

Applied Family & Child Studies, 49(3), 245-255.

Tetenbaum, T., Lighter, J., & Travis, M.(1983). The construct validation of an attitudes toward Working Women Scale.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8, 69-78.

Vandell, D. L., Hyde, J. S., Plant, E. A., & Essex, M. J. (1988). Father and "others" as infant-care provider: Predictors of parents' emotional well-being and marital satisfaction. *Merrill-Palmer*

Quarterly, 43, 361-385.

Vandell, D. L., & Ramanan, J.(1992). Effects of early and recent maternal employment on children from low-income families. *Child Development*, 63, 938-949.

접 수 일 : 2008년 8월 27일

심사시작일 : 2008년 9월 3일

게재확정일 : 2008년 12월 17일